

거시경제이론

고려대학교 2017년 봄

조남운

내용

- 강의계획
- Ch1. Current Macroeconomic Status
- CH2. Macroeconomics: Overview

2017년 봄 거시경제이론 (ECON202-04) 강의계획

조남운

2017년 3월 2일

강의의 목적

집계적으로 측정되는 주요 거시변수들인 국민소득, 실업률, 물가 및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환율, 국제수지 등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들이 서로 어떤 관련을 맺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IS-LM 모형, AS-AD 모형 등의 기초 모형을 이해하고 거시정책의 효과를 그 역사적 사례와 함께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거시경제학이라는 분과 자체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서 비롯된 만큼, 실증 자료의 분석이 매우 중요함. 이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은 다른 과목인 계량경제학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에서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상관관계 검토는 다룰 것임 (차트 등의 시각적 도구를 통해.)

강의의 목표

- 핵심 모형의 이해
 - IS-LM 모형
 - AS-AD 모형
 - 장기성장모형
 - 화폐금융론 기초
 - 개방경제
 - 거시경제정책
- 원하는 국가의 측정된 거시경제변수를 직접 찾을 수 있어야 함

추천 선수과목 및 수강 요건

- 경제원론1,2 정도의 사전 지식을 전제로 함
- 다변수함수의 의미와 편미분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함 (경제수학)

-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은 아래의 교재의 구성에 강력히 의존하고 있음
 - Olivier Blanchard and David R. Johnson, *Macroeconomics* 6th Ed.
 - 원서의 경우 7판이 최근 발간된 상태. 원서를 쓸 학생은 7판 구입을 권장.
차트나 데이터는 7판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것임.
 - 한글판 번역 있음 (최희갑 역, “거시경제학” 6판)
 - 위 텍스트에 기반하여 강의노트 별도 제공 (주텍스트의 요약판으로
생각해도 무방함)

대부분의 거시경제학 교과서는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치명적 문제를 야기하진 않음. 하지만 모형 설정이나 변수의 기호가 다른 방식으로 붙을 수 있으며, 장별 순서가 다른 점, 차트가 수업과 달라지게 될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하지만 어떤 교과서든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이 들어 있는 최신판을 선택할 것을 권장함.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교과서들이 이에 해당함.

- Mankiw *et al.*, *Macroeconomics* 최신판
- 정운찬 *et al.*, “거시경제이론” 최신판

- 거시경제 관련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시정보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정확성을 검토하는 과제가 주어질 것임 (5%)
- 웹기반으로 단순화된 가상의 금융시장에서의 투자가 클래스 내에서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될 것임. 여기에 참가비율이 총점대비 2.5%, 가상 상대 수익이 총점대비 2.5%가 반영될 예정. (총 5%)

주별 학습내용

강의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장은 생략할 수도 있음

1주차 서론 및 개관 (1,2장)

2주차 재화시장, 금융시장 (3,4장)

3주차 IS-LM 모형 (5장)

4주차 노동시장, AS-AD모형 (6,7-1장)

5주차 AS-AD모형, 필립스곡선 (7-2장, 8장)

6주차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성장 (9,10장)

7주차 저축과 자본축적, 기술진보와 성장 (11,12장)

8주차 중간시험

9주차 기술진보, 기대 (13,14장)

10주차 금융시장, 기대/소비/투자 (15,16장)

11주차 기대/산출/정책, 개방경제 (17,18장)

12주차 개방경제(재화시장), 환율 (19,20장)

13주차 환율제도, 정책 (21,22장)

14주차 재정정책, 통화정책 (23,24장)

15주차 거시경제학에 관하여 (25장)

16주차 기말시험

시험

- 중간시험은 총 성적의 40%
- 기말시험은 총 성적의 50%
- 나머지 10%는 앞에서 언급한 두 건의 과제와 관련된 점수임.
- 본 강의는 고려대의 3무 정책중 무감독 시험제도를 따름. 3무 정책에 대한 내용은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2>[링크]를 참고하기 바람.

- 본 강의는 고려대의 3무 정책 중 출석확인 자율화 제도를 따름. 따라서 출석횟수는 성적처리와 무관함

기타

- 최신판 강의슬라이드는 <https://github.com/z0nam/macroNote> 를 통해 관리할 예정.
로그인이 필요 없으므로 청강생도 접근할 수 있음. (첫 강의일에
오픈예정)
- 강의자료 외 기타 수업관련 내용들은 <http://kulms.korea.ac.kr> 를 통해 관리함 (과제, 시험결과 공시
등)
- 기타 궁금한 점들은 <mailto:economics2.namun+2017sp@gmail.com> 을 이용할 것
- 면담 가능 시간은 매주 월요일 수업시간 전후이며, 장소는 교양관, 혹은
대학원도서관이 될 것임. 면담 전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해주길

- 본 강의는 KUOCW (Korea University Open CourseWare) 프로그램에 참가중임
- 강의 동영상 촬영 지원시 30만원 정도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관련 문의: 고려대 e-Learning 지원팀)
- 촬영 자원자는 쉬는 시간에 면담 혹은 이메일로 요청하길 바람.

거시경제 현황 개관

Ch1

개관

- 2008 미국 경제위기
- 미국의 경제현황
- EU의 경제현황
- 중국의 경제현황
- 주요 거시경제적 질문들.

US Financial Crisis 2008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이후 SML으로 약칭):
 - 신용조건이 낮은 사람을 상대로 주택 시세의 100% 내외수준으로 대출해주는 미국의 금융상품
 - 이자율이 높지만, 미국 주택가격의 급상승으로 안전성이 보장됨

미국 부동산 거품: 배경

US Housing Price Bubble

- 2000년 초 경기악화(주가폭락, 911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 실시
 - 주택가격 상승
 - 주택용자 금리인하 → 부동산수요 ↑ → 부동산가격상승
 - 주식투자자금 부동산으로 이동 → 부동산수요 ↑ → 부동산가격상승
 - 외국인들 미국 부동산 매입 → 부동산수요 ↑ → 부동산가격상승

미국 부동산 가격추이: 1988-2006



SML의 수익구조

- 주택가격 상승률 > 이자율
- SML은 가장 위험한 대출이지만, 파산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전되어 손해를 보지 않음 → SML 대폭 증가
- 변동금리: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의 변동에 맞춰 상환 금리가 변동
 - 저금리 → 낮은 대출금리 → SML ↑

확산: SML의 증권화 Securitization

- SML을 증권화: SML의 용자금 상환권을 다른 자산 취득권들과 결합하여 다른 이에게 매도하는 것(자산유동화 증권(ABS))
- 금융사의 유동성 확보가 목적(SML의 낮은 유동성 문제를 해결)
- 높은 안정성으로 인해 SML이 섞여있는 증권의 신용등급은 최고 등급(AAA)으로 평가되었음
- 높은 수익률과 신용등급으로 인해 거래량 폭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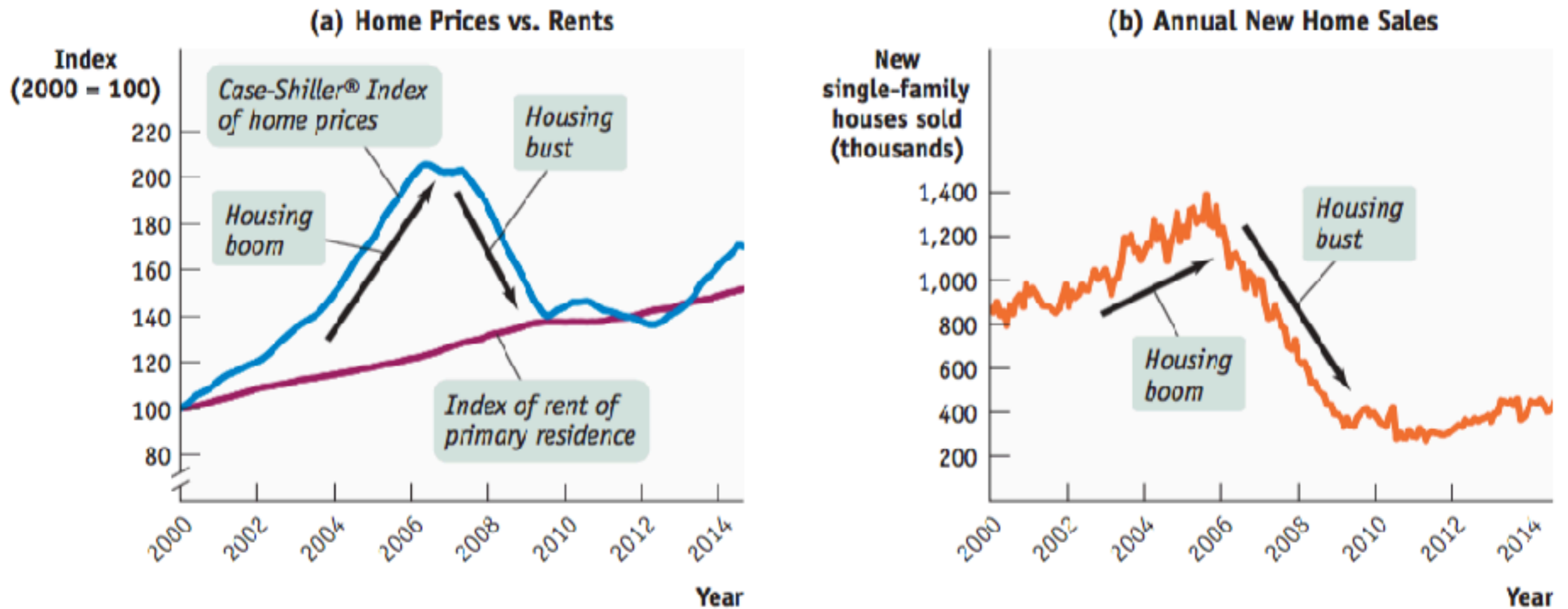
버블 붕괴

- 2004이후, 저금리정책 종료 --> 금리인상 --> 주택
금리 상승 --> SML 이자율 상승
- 부동산 거품 붕괴



US Housing Bubble

FIGURE 25-9 The Great American Housing Bubble



Sources: Panel (a): Standard and Poor's; Bureau of Labor Statistics. Panel (b):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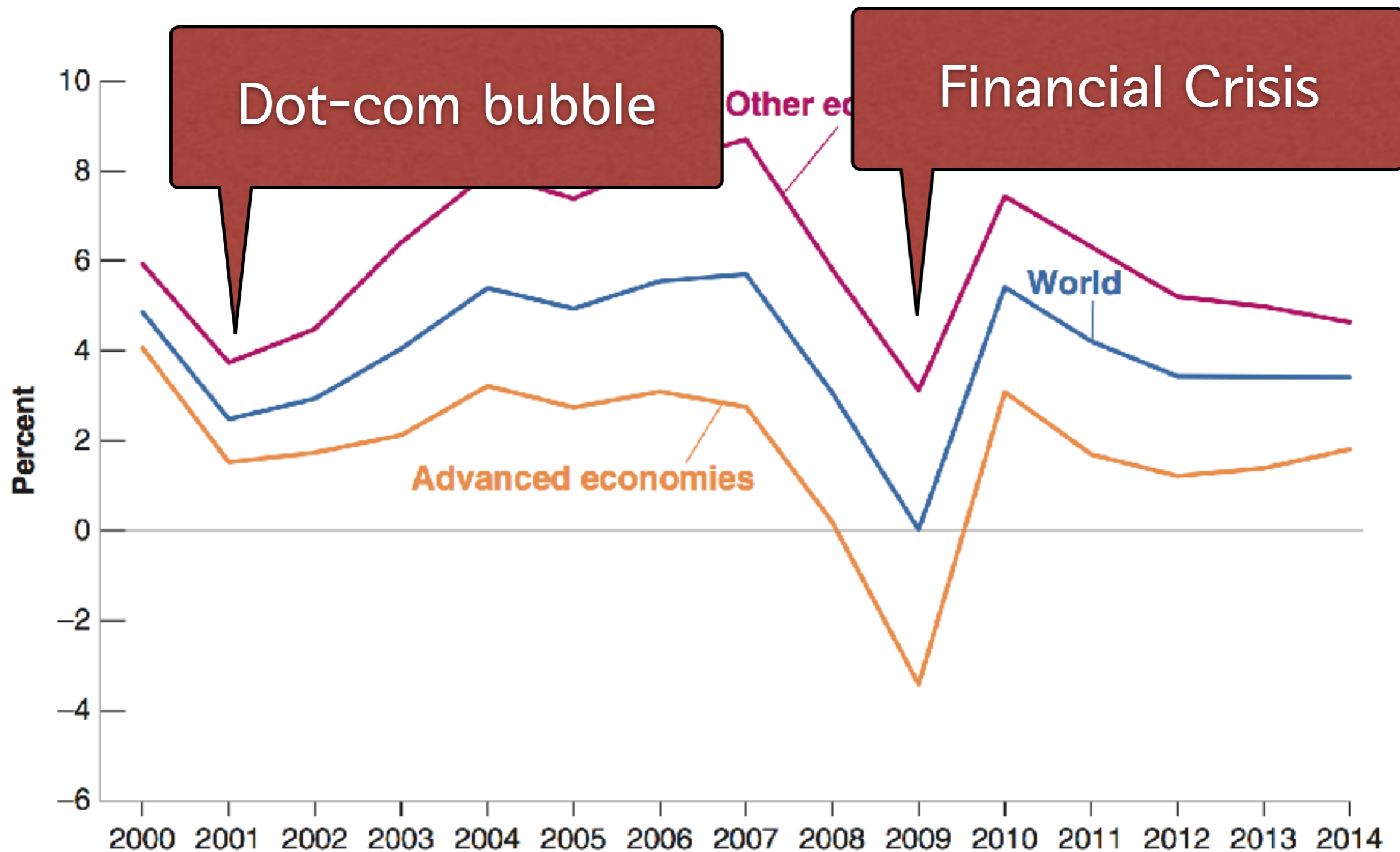
파산경로

- SML회수불능사태 발생
- 증권화된 SML을 구매한 금융기관 손실 발생
- 미 정부, SML관련 문제 개입 공식 부정
- 미국 내 대형 금융기관, 증권회사의 손실이 세계적으로 확산 ➔ 대형 금융사 파산 ➔ 신용경색 ➔ 실물경제 타격

교훈 lessons

- 투기적 금융거래는 불안정성을 심화시킴
- 금융 공황은 실물경제에 타격을 가져옴
- 공적자금투입과 도덕적 해이의 긴장
 -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시스템”(누리엘 루비니)
- 투기적 금융거래에 대한 견제 필요성

GDP growth rate: 2000-2014



Stock Price Index: 2007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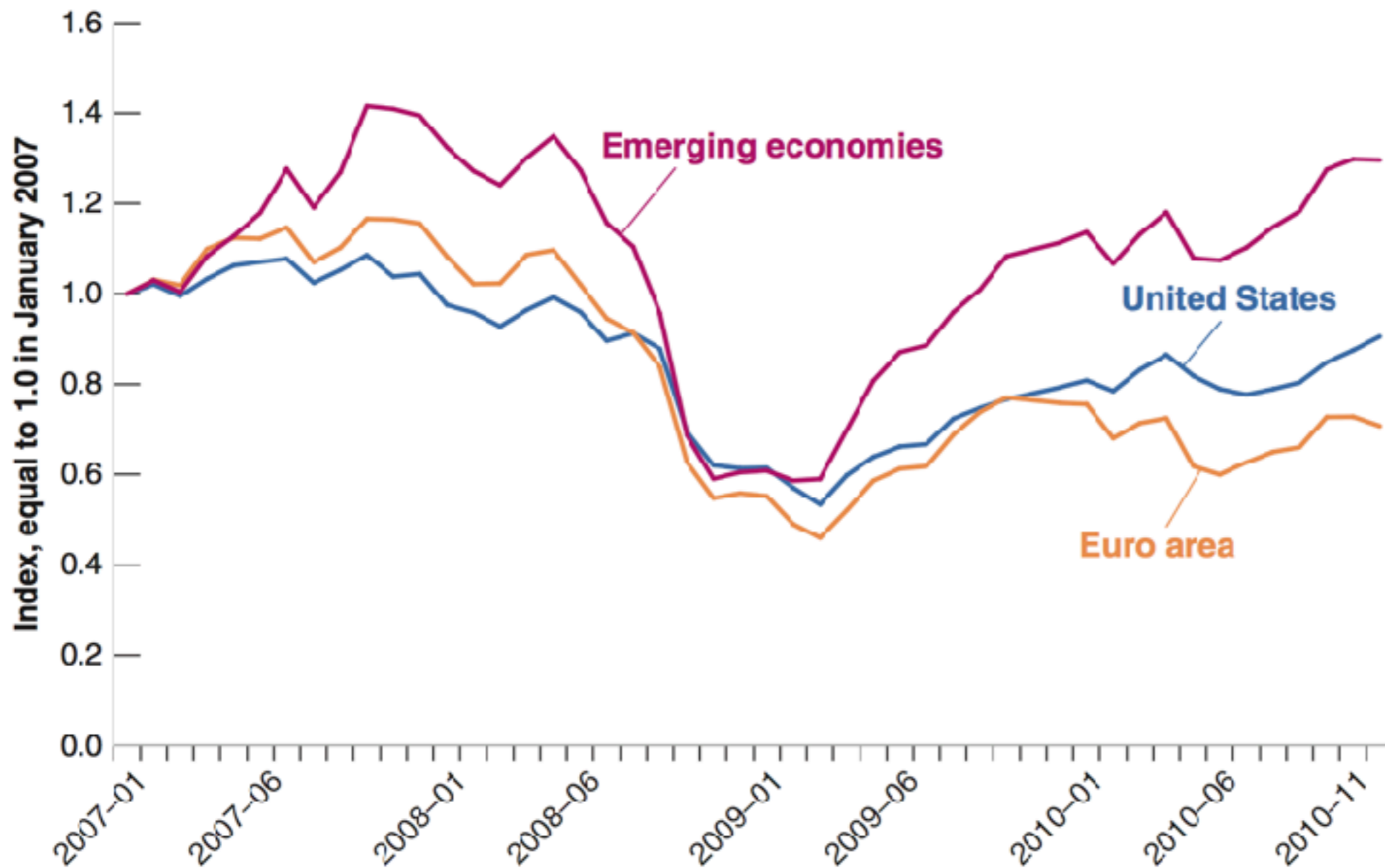


Figure 1-2

Stock Price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 Area, and Emerging Economies, 2007-2010

Source: Haver Analytics USA (S111ACD), Eurogroup (S023ACD), all emerging markets (S200ACD), all monthly averages.

US crisis → World crisis

- 무역경로
 - 미국 소비지출, 투자지출 감소
 - 미국 수입 감소 → 세계 수출 감소 → 세계 총생산 감소
- 금융경로
 - 미 은행의 자금회수 → 세계 은행들의 신용 경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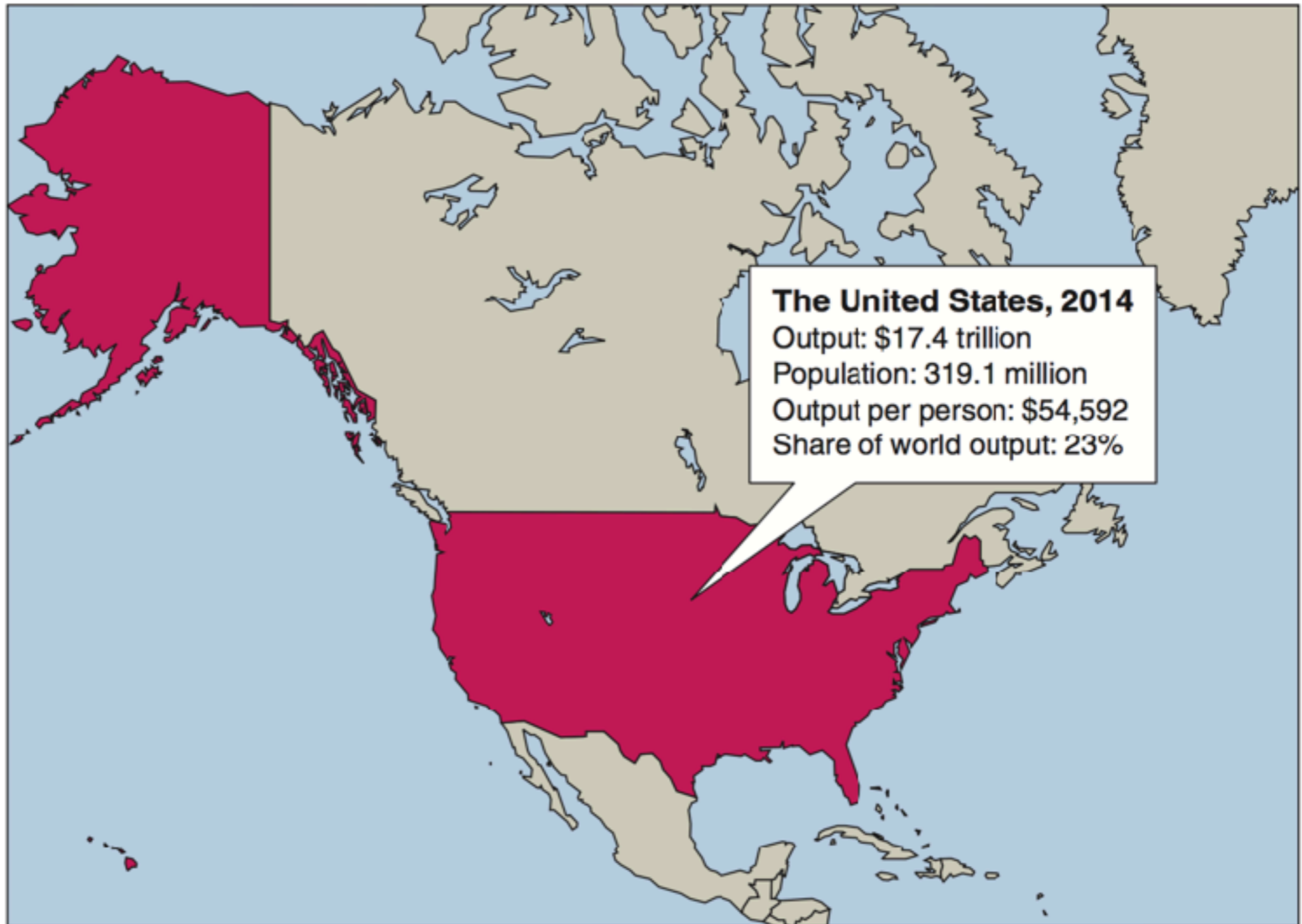
회복

- 신흥국, 개발도상국: 회복
- 선진국
 - 실업률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함
 - EU가 미국에 비해 더 심각한 편
 - 단, 미국은 2015년 이래로 실업률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

미국 경제

Figure 1-3

The United States, 2014



주요 거시경제 지표

- 경제성장률 (GDP)
- 실업률 (Unemployment rate)
- 인플레이션율 (Inflation rate)

미국의 3대 거시지표

Table 1-1 Growth, Unemployment, and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1990–2015

Percent	1990–2007 (average)	2008–2009 (average)	2010–2014 (average)	2015
Output growth rate	3.0	-1.5	2.2	2.5
Unemployment rate	5.4	7.5	8.0	5.4
Inflation rate	2.3	1.4	1.6	0.7

Output growth rate: annual rate of growth of output (GDP). Unemployment rate: average over the year. Inflation rate: annual rate of change of the price level (GDP deflator).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5.

현상태

- 2008년 위기 이후 회복 국면
- 실업률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옴
- 기타 거시 지표들도 청신호
- 두 가지 문제가 있음: 저금리, 저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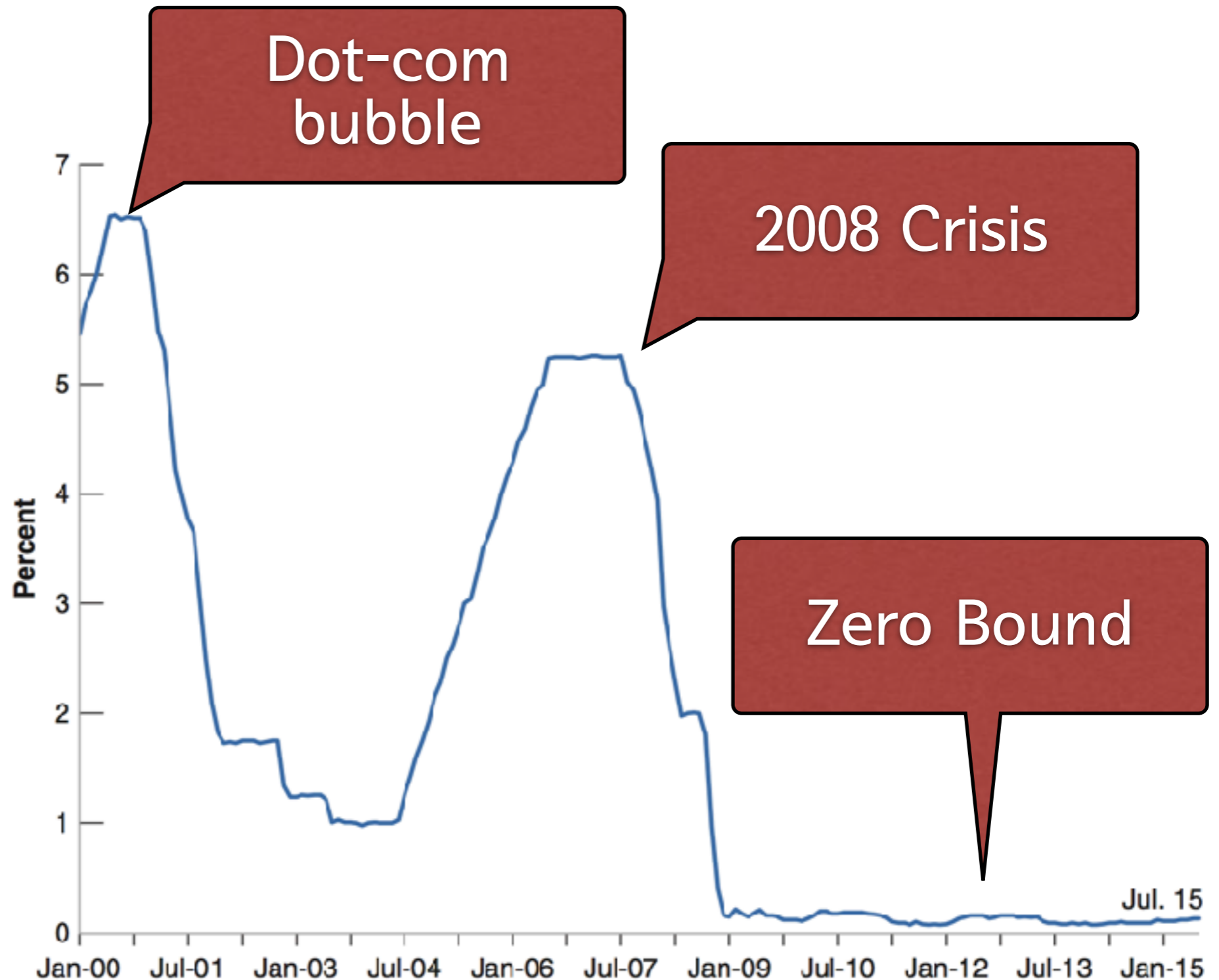
미국의 금리: 2000-2015

Figure 1-4

The U.S. Federal Funds Rate since 2000

Source: Haver Analytics.

MyEconLab Real-time data



저금리의 문제점.

- 통화정책의 제약
 - 중앙은행이 금리로 경기부양을 할 수 없음
 - Zero Bound
 - 참고: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 금융 위기 가능성 존재
 - 저금리 → 금융 부문의 리스크 추구 행위 유발 가능성

저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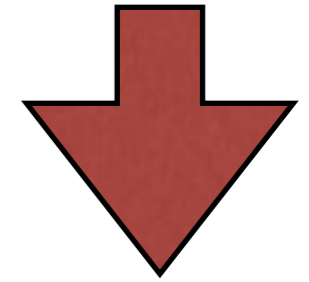


Table 1-2 Labor Productivity Growth, by Decade

Percent change; year on year (average)	1990s	2000s	2010–2014
Nonfarm Business Sector	2.0	2.6	1.2
Business Sector	2.1	2.6	1.2
Manufacturing	4.0	3.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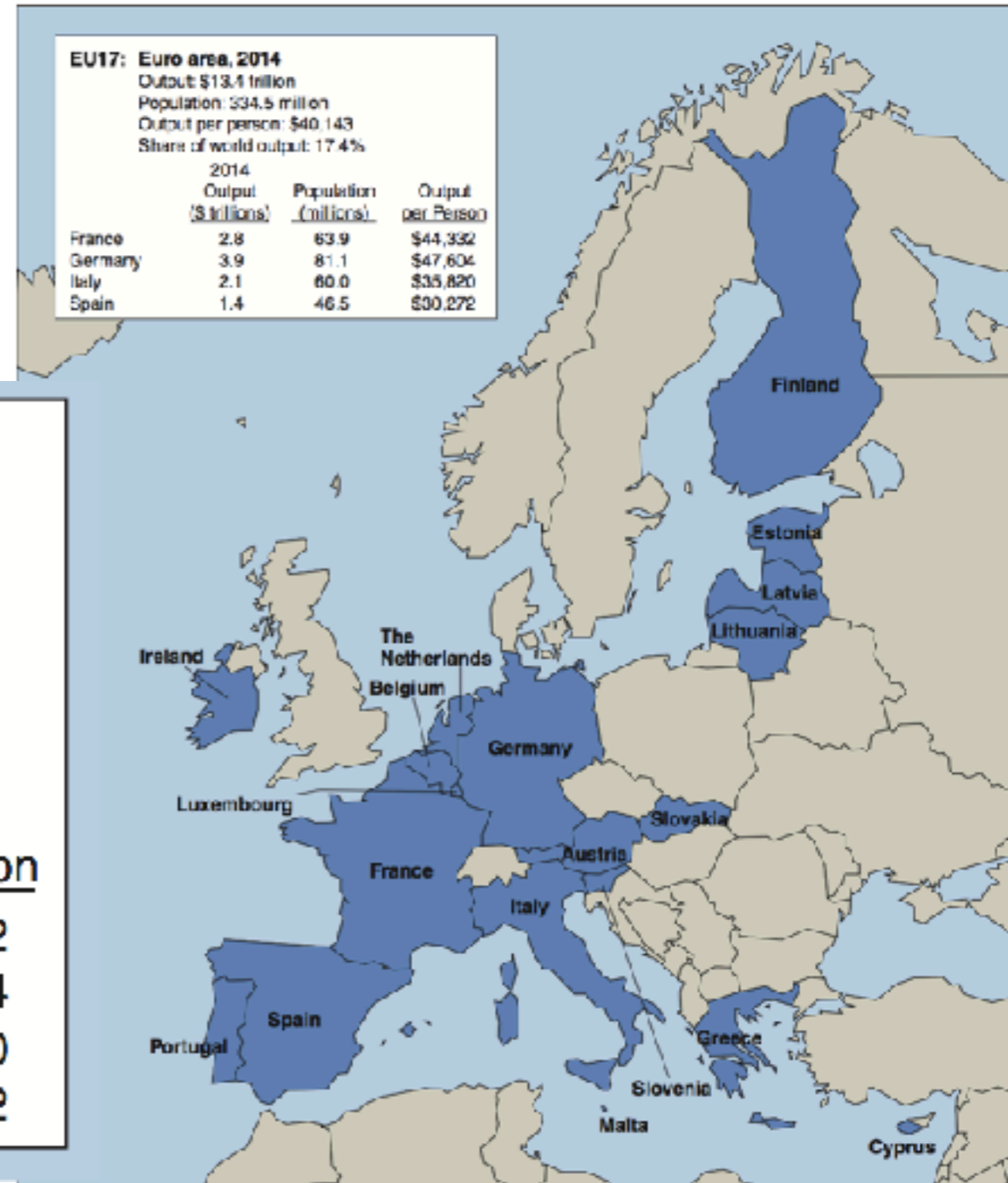
Source: Haver Analytics.

저생산성 국면의 문제점.

- 저생산성 국면이 맞는지 자체도 논쟁적
 - 생산성 측정 자체가 쉽지 않음
 - 신규 산업이 등장하는 경우는 더 어려워짐
- 다만, 이 국면이 불평등성의 증가의 맥락에서 발생했다는 측면은 우려해야 함
 - 2000년 이래로 미국의 고졸 이하 실질 소득은 그 절대액이 감소하고 있음.

유럽연합.

cf. Korea (2015):
 Output: \$1.378 trillion
 Output per capita: \$27,222
 GDP growth: 2.6%



EU17: Euro area, 2014
 Output: \$13.4 trillion
 Population: 334.5 million
 Output per person: \$40,143
 Share of world output: 17.4%

	2014 Output (\$ trillions)	Population (millions)	Output per Person
France	2.8	63.9	\$44,332
Germany	3.9	81.1	\$47,604
Italy	2.1	60.0	\$35,820
Spain	1.4	46.5	\$30,272

유럽연합 주요 거시지표

Table 1-3 Growth, Unemployment, and Inflation in the Euro Area, 1990–2015

Percent	1990–2007 (average)	2008–2009 (average)	2010–2014 (average)	2015
Output growth rate	2.1	−2.0	0.7	1.5
Unemployment rate	9.4	8.6	11.1	11.1
Inflation rate	2.1	1.5	1.0	1.1

Output growth rate: annual rate of growth of output (GDP). Unemployment rate: average over the year.
 Inflation rate: annual rate of change of the price level (GDP deflator).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5.

현상태.

- 좋지 않음
- 해결해야 할 문제
 - 고실업
 - 공통통화 (common currency)

EU의 고실업

- 다양한 지적과 합의되지 않은 논쟁들이 진행중
- ECB의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 vs..
- 노동시장제도 문제
 -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론: 경직성 제거 vs..
 - 노동정책에 대한 비효율적 집행방식..
 - 예: 네덜란드, 덴마크의 노동자들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저실업(<4%)

유로화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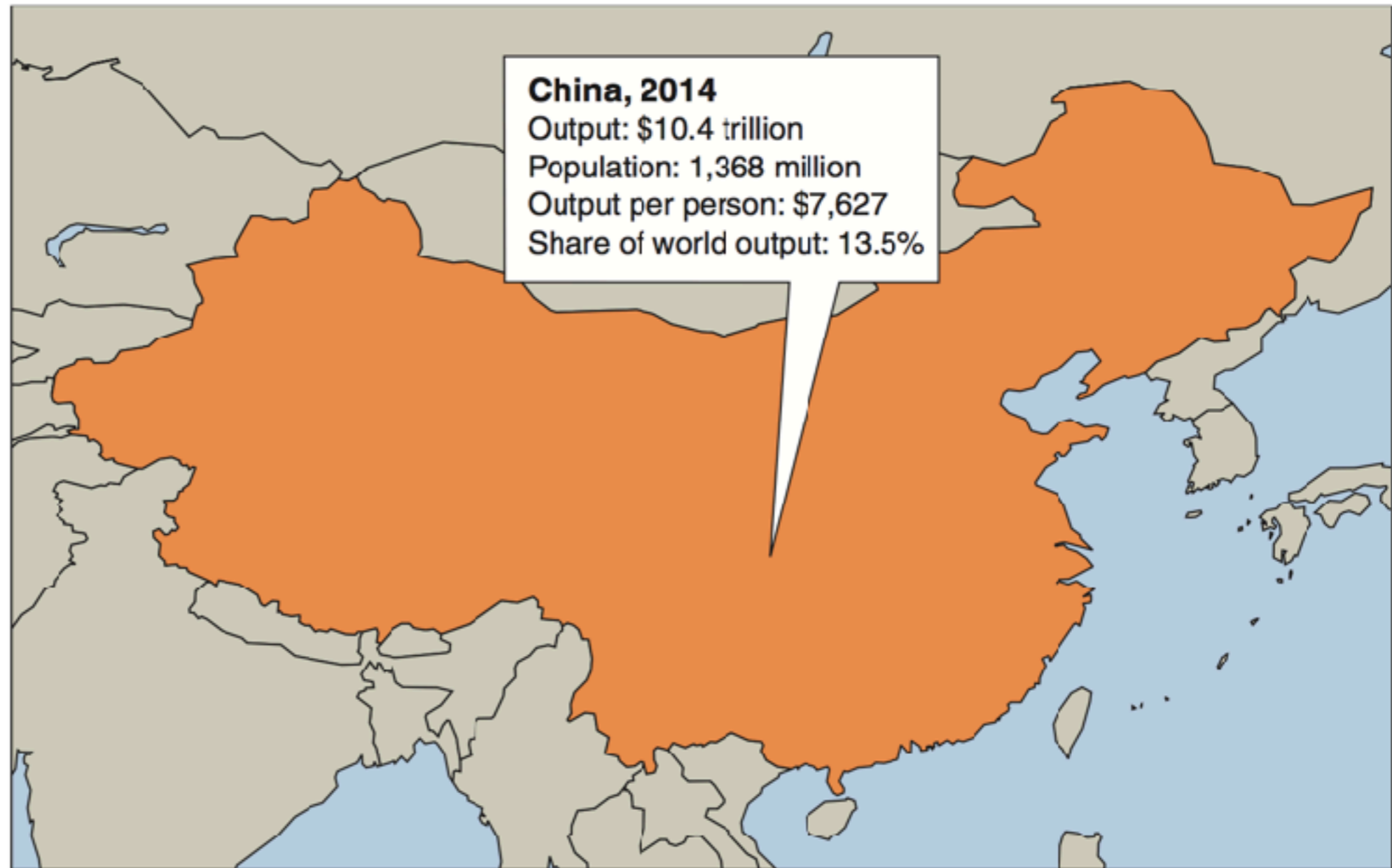
- 공통통화의 잇점
 - EU국간 거래의 마찰비용(환전 등) 제거
 - EU국간 분쟁이 근본적으로 차단됨: 정치적 안정성 확보
- 문제점
 - 통화정책의 제약
 - EU 회원국간 경제상태는 다름
 - ex: Greece

중국

Figure 1-7

China, 2014

Source: World Economic
Outlook, IMF.



중국: 주요 거시지표

Table 1-4 Growth, Unemployment, and Inflation in China, 1990–2015

Percent	1990–2007 (average)	2008–2009 (average)	2010–2014 (average)	2015
Output growth rate	10.2	9.4	8.6	6.8
Unemployment rate	3.3	4.3	4.1	4.1
Inflation rate	5.9	3.7	4.2	1.2

Output growth rate: annual rate of growth of output (GDP). Unemployment rate: average over the year.
Inflation rate: annual rate of change of the price level (GDP deflator).

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5.

중국 경제 현황

- 2008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요 거시지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
 - 2008년 수출 저하를 공공지출의 증가로 상쇄시킴
- 지속적인 성장률 자체의 감소 경향 (절대 성장률 자체는 무척 높은편)

중국의 고성장

- 높은 자본축적률*
- 빠른 기술진보*
 - 고생산성 기업의 중국내 생산
 - 외국기업과 중국기업간의 조인트 벤치 장려정책
- 빠르지 않은 경제체제 전환
- 엄격한 정치적 통제가 역설적으로 기업을 강력히 보호 → 투자유인*

현재의 중국 저성장 국면.

- 분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님.
- 자본축적, 수출지향, 기업 중심의 시스템은 총생산 성장에 기여
- 내수 활성화 정책의 결과: 기업의 투자 보다 중국 국민의 소비지출 증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함
 - 해외 수요에 기반한 고성장 국면을 만들기는 어려운 정책
 -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에는 직접적으로 기여

다른 지역들의 현황

- 한국: 저성장 국면, 가계부채, 저출산 고령화
- 인도: 빠른 경제성장중 (10% 내외)
- 일본: 1990년 이래 저성장/고실업 국면
- 남미: 일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긴 했지만 대체로 고성장 기조를 유지중
- 중부/동부유럽: 1990년대 시장체제 전환에서 산출
그락을 겪음. 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고성장 국면에
돌입
- 아프리카: 2000년 이후 평균 5.5% 대 고성장

주요 거시경제학적 질문들

- 금융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진국과 일부 국가들의 회복은 왜 더딘가?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가? 재정적자율의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 공통통화지역에 가입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을까? 고실업 국면은 어떻게 타계할 수 있는가?
- 주요 경제지표가 국가마다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큰 이유는 무엇인가? 저성장 저개발국은 중국을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

거시경제학 개관

The Big Picture

Outline

-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 경기순환
- 장기 성장
-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 개방경제(Open Economy)

미시경제학의 대상

- ‘개별’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 행동, 생산요소간의 자원배분 등

미시경제학적 문제의 예

- 대학생 모씨의 의사결정: 이번 학기에는 과외를 몇 개 할 것인가?
 - 개인의 수입에 대한 의사 결정
- 모기업 인사과: 3/4분기에 얼마나 많은 신규직원을 모집할 것인가?
 - 개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

거시경제학의 대상

- 전체로써의 국가경제, 혹은 지역 경제이슈
- 총계변수(Aggregate variable)를 다룸:
 - 총생산, 물가, 성장률, 실업률, 환율 등

거시경제학적 문제의 예

美, 3차 양적완화 여부 9월 결정... 버냉키 "장기 경기 전망은 낙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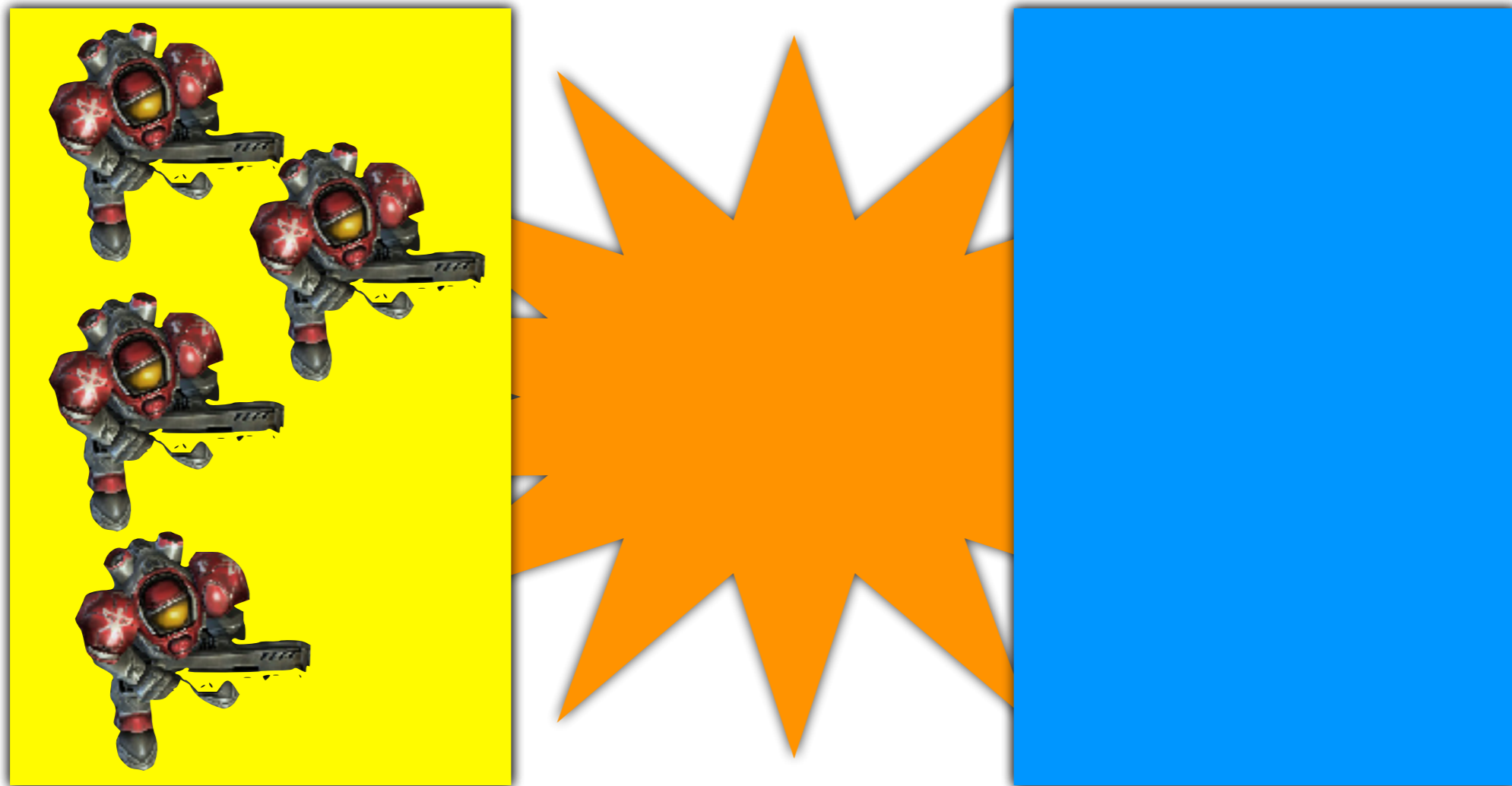


-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는 통화량을 늘려야 하는가?

거시현상: 부분과 전체

- Micro foundation of macroeconomics
- 부분(미시적 현상)의 합은 전체(거시적 현상)라 할 수 있는가?

5:4의 싸움



$$5 - 4 = 1?$$

부분과 전체

- 경제위기시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모으는 것은 가계의 입장에서 합리적: 미시적 합리성
-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모든 가계가 지출을 줄일 경우 [기업 매출 감소 ➔ 실업 증가 ➔ 가계총 지출 감소]의 악순환 증폭: 거시적 비합리성
- 미시적으로 올바른 조치가 거시적으로는 불합리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스미스의 테제: “미시적 최적 행위는 거시적 최적 결과를 가져온다”

Quantity is not the problem

- 코카콜라사의 매출액 > 바티칸의 GDP
- 코카콜라의 투자문제는 미시적 영역.
- 바티칸의 물가는 거시적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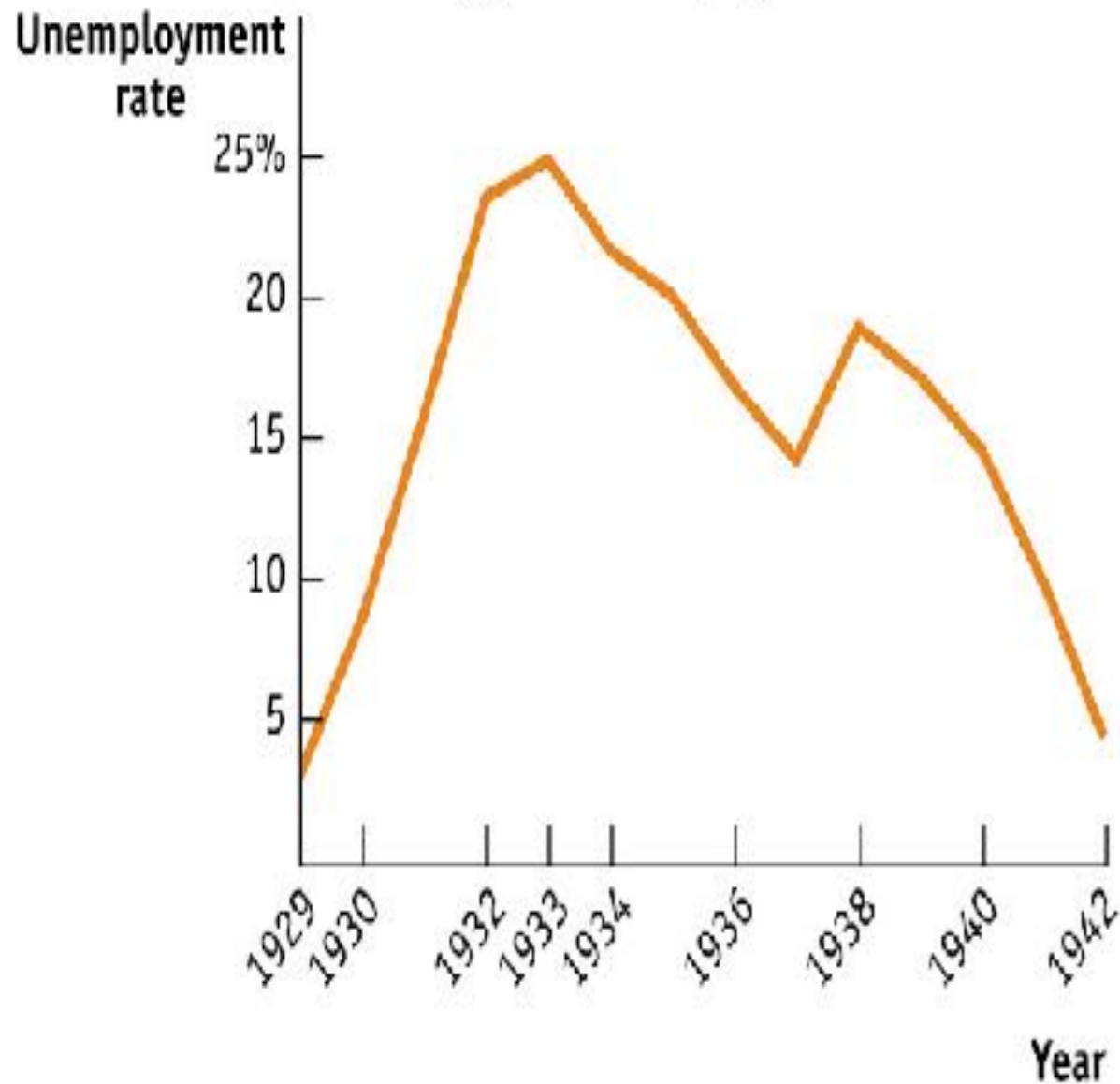
거시경제학의 탄생배경

Great Depression
1929-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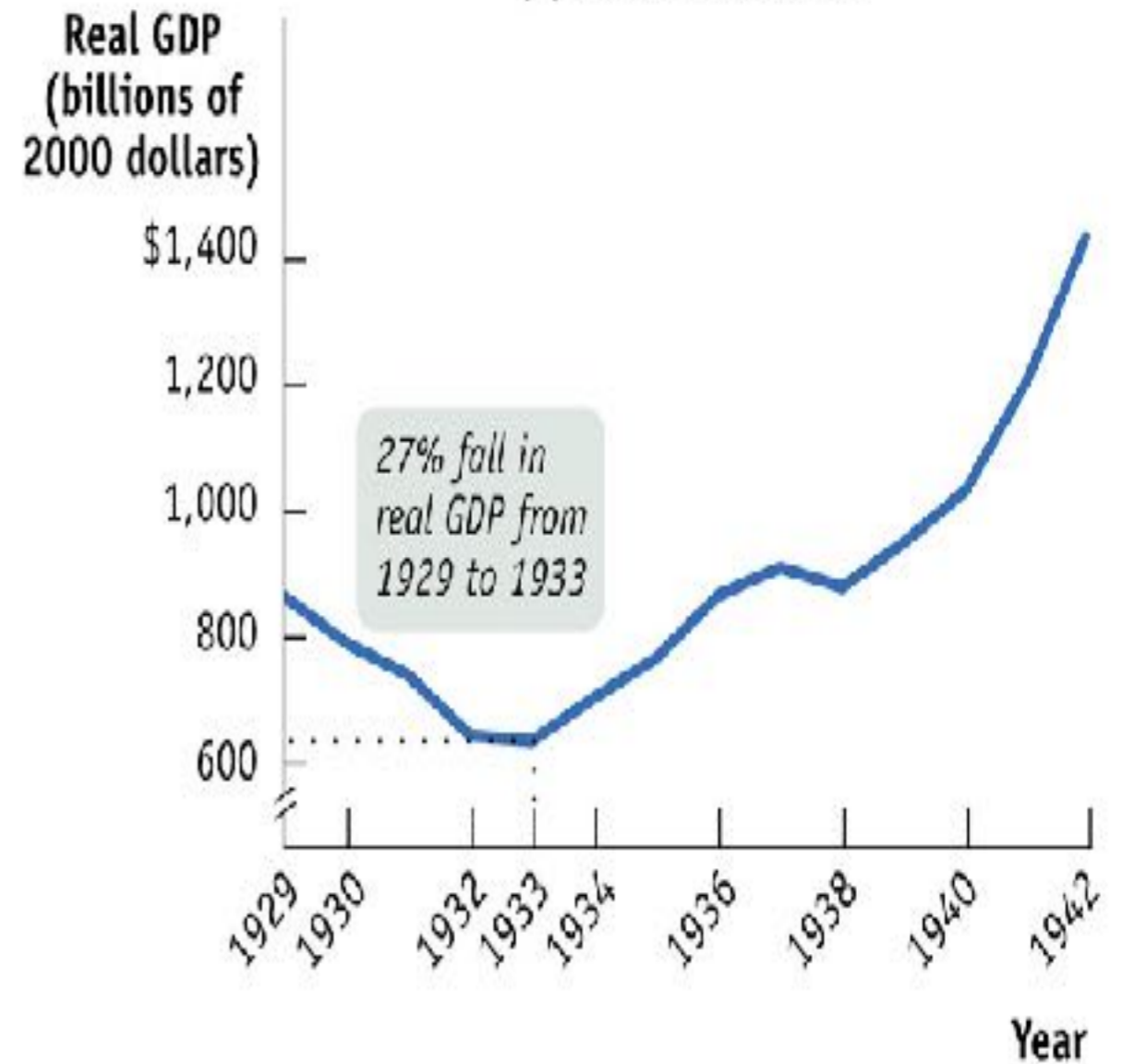


Great De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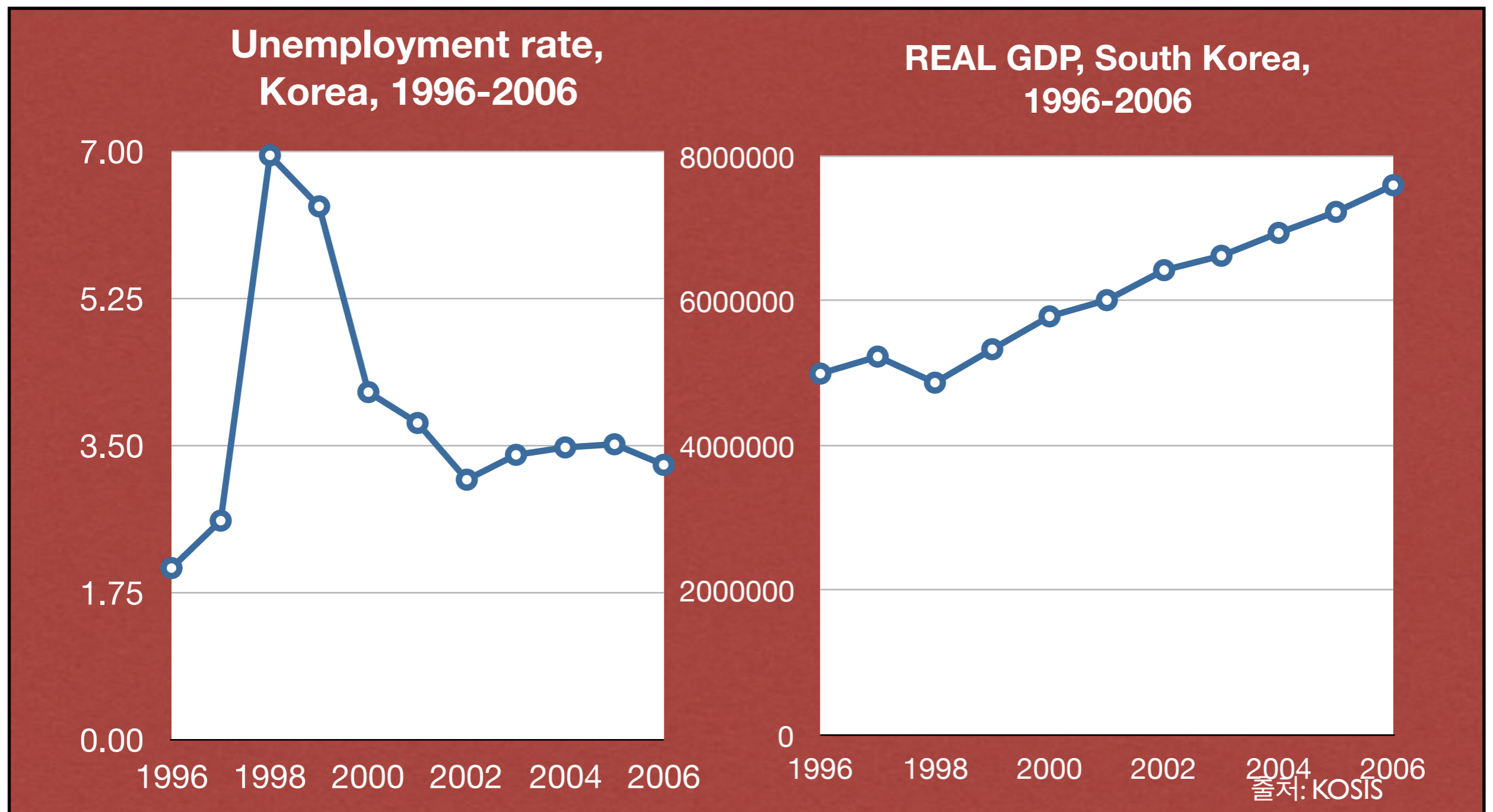
(a) The Unemployment Rate



(b) Aggregate Output



Financial Crisis in Korea (1997)



거시경제학의 탄생

- 1929년 주가폭락 이후로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10년동안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음
- 경제적 이유로 발생한 침체: 천재지변, 전쟁 등과 무관
-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제기됨
- 기술발전: 총계변수, 집계방식등 개발
- Keynes, 스웨덴 학파 등의 경제학자들은 총체로서의 경제 그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을 발전시킴: 거시경제학의 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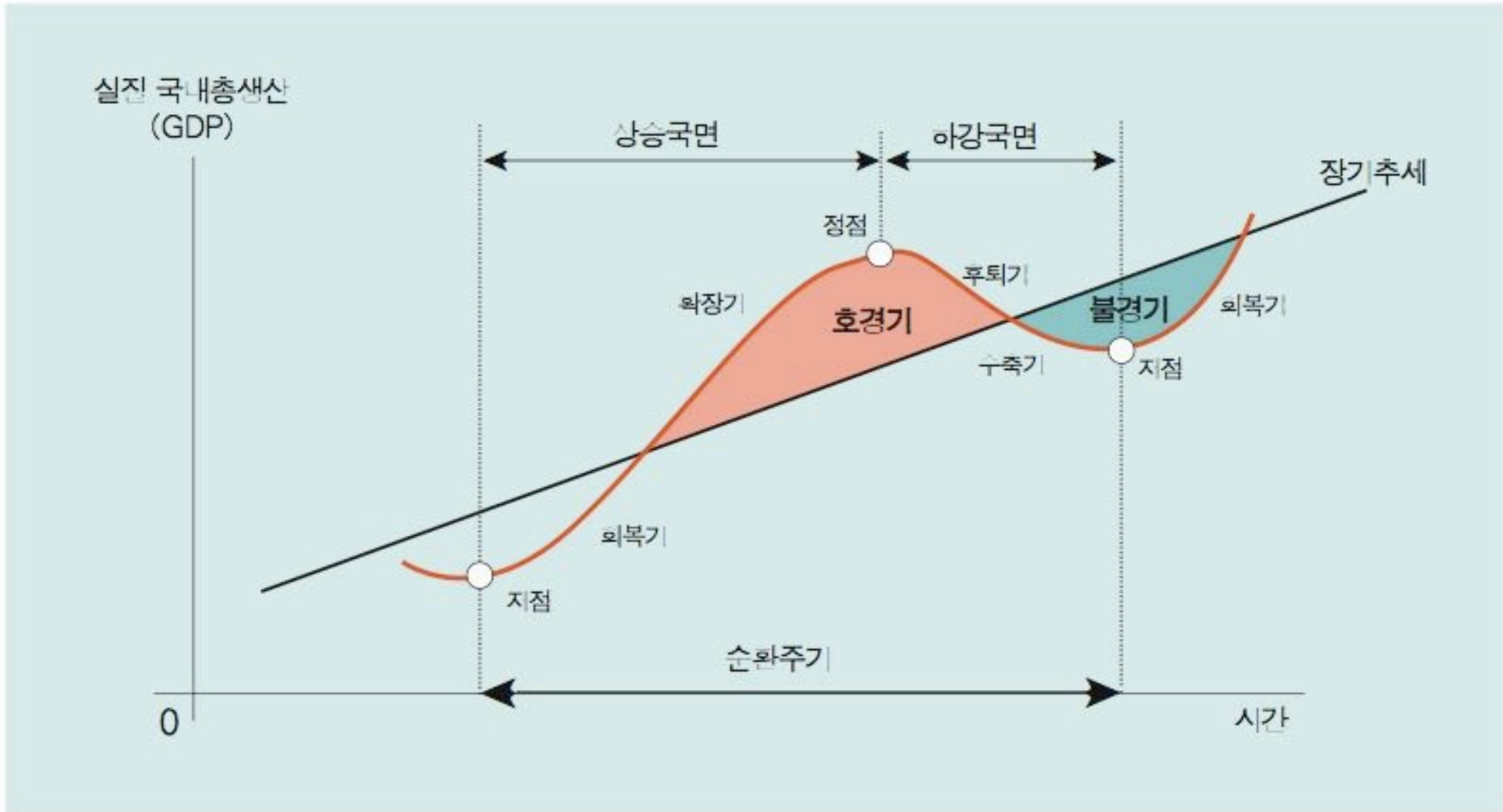
거시경제학의 이슈들

Macroeconomic Issues

경기순환 Business Cycle

경기순환 (GDP 변동)

그림 9-1 경기의 순환과정



실업 Unemplo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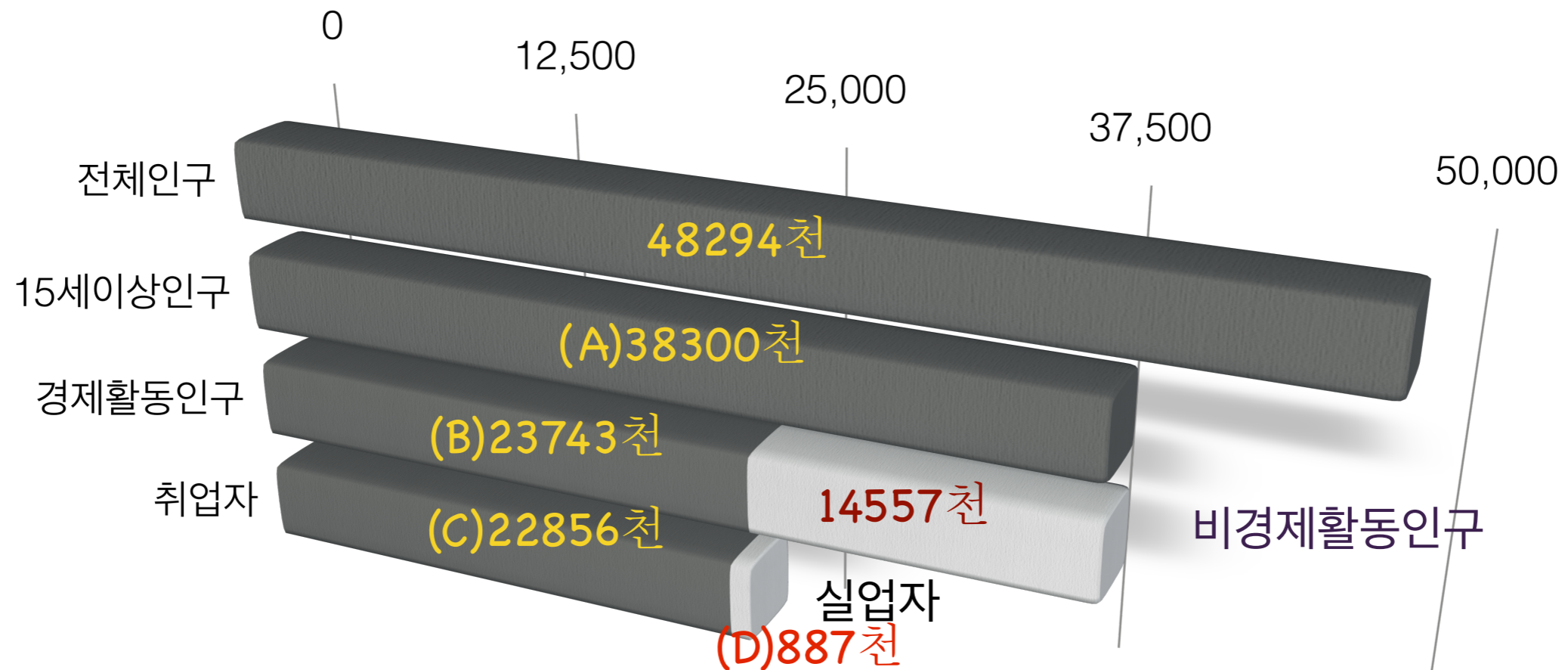
실업률 Unemployment Rate

-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
- 경제활동인구의 정의상 취업을 포기한 경우(실망실업자)나 취업했으나 사실상 실업에 가까운 경우(과소취업인구) 등을 포착하지 못함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상황을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총계지표

실업률의 산출 (한국, 2005)

Calculating Unemployment Rate

실업율: $D/B * 100 =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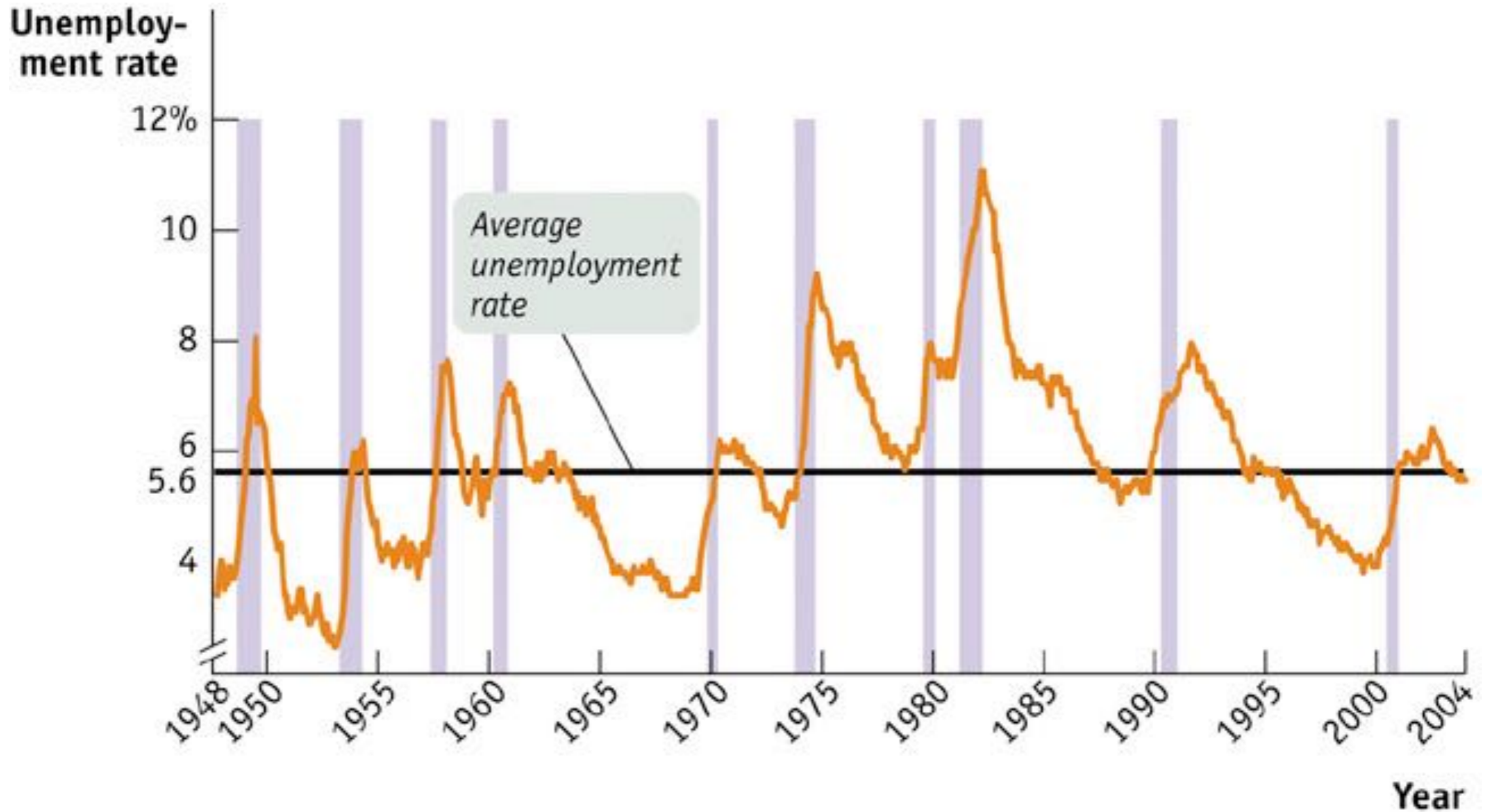
고용률: $C/A * 100 = 59.7\%$

경제활동참가율: $B/A * 100 = 62.0\%$

경기순환과 실업 Business Cycle and Unemployment

- 경기후퇴기에는 실업률이 상승
- 경기팽창기에는 실업률이 하강
- 완전고용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0%가 될 수 없음.

경기변동과 실업간의 관계: 미국 1948-2004



총생산

Aggregate Output

총생산이란? What is Aggregate Outp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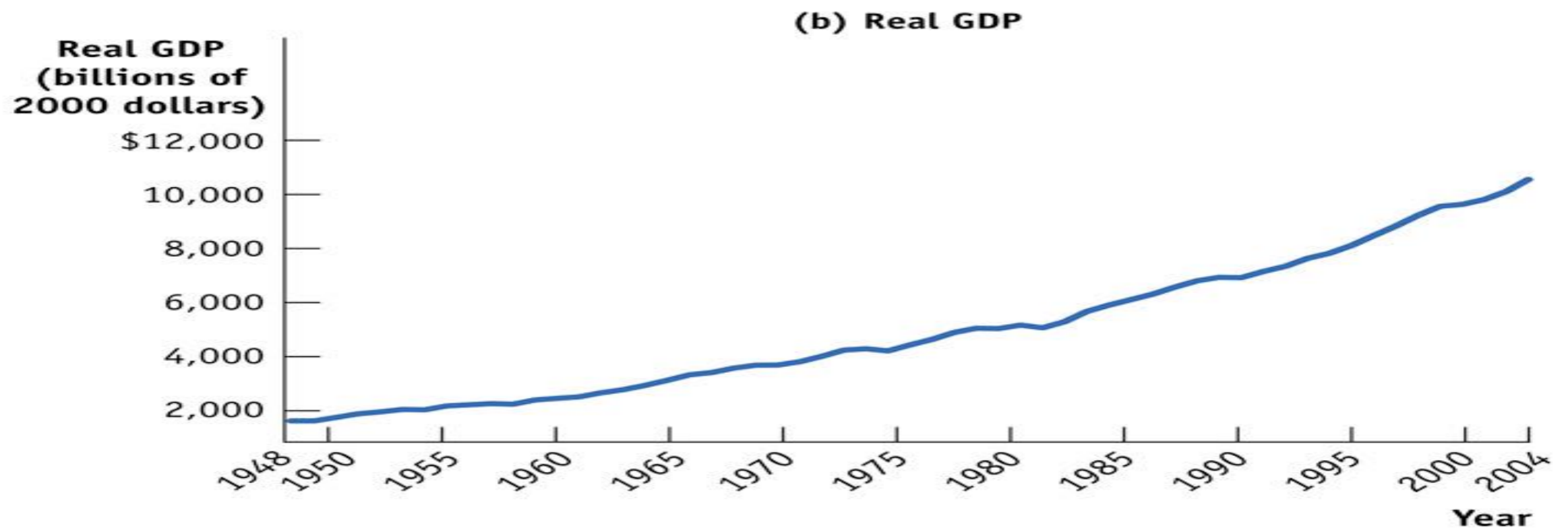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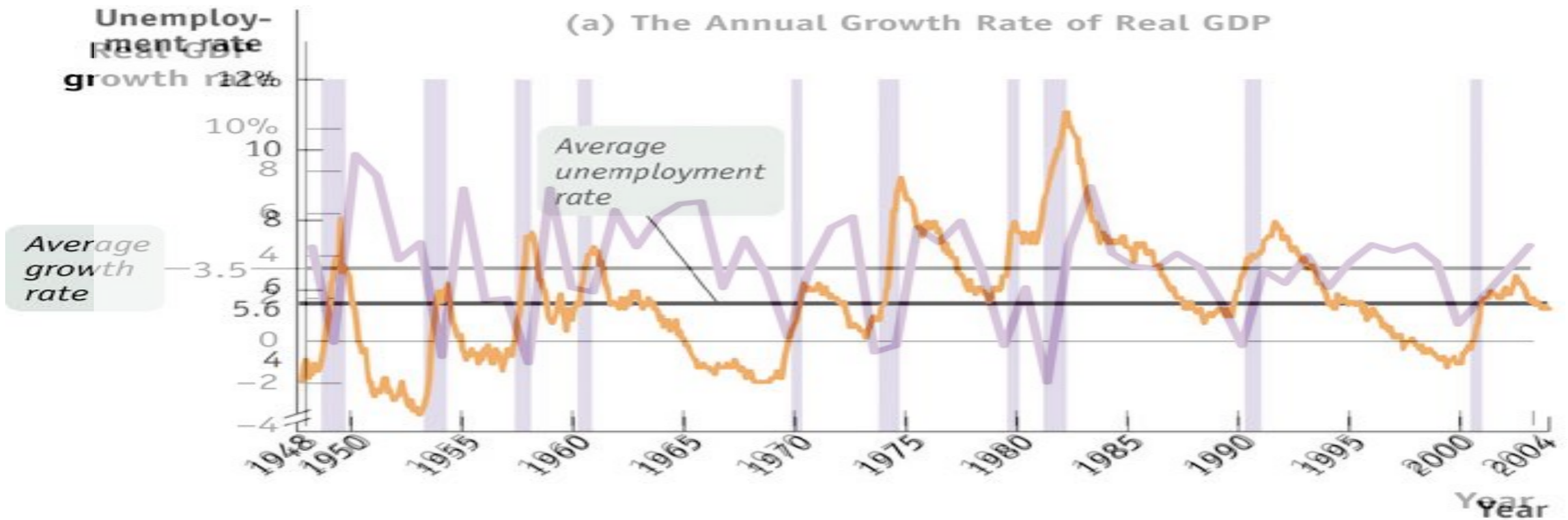
- 일정 기간(1년) 동안 한 경제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합
- 총생산의 산출 기준에 따라: GDP, GNP, GNI..

경기순환과 총생산

Business Cycle and Aggregate Output

- 경기후퇴기에는 총생산이 감소
- 경기팽창기에는 총생산이 증가

미국의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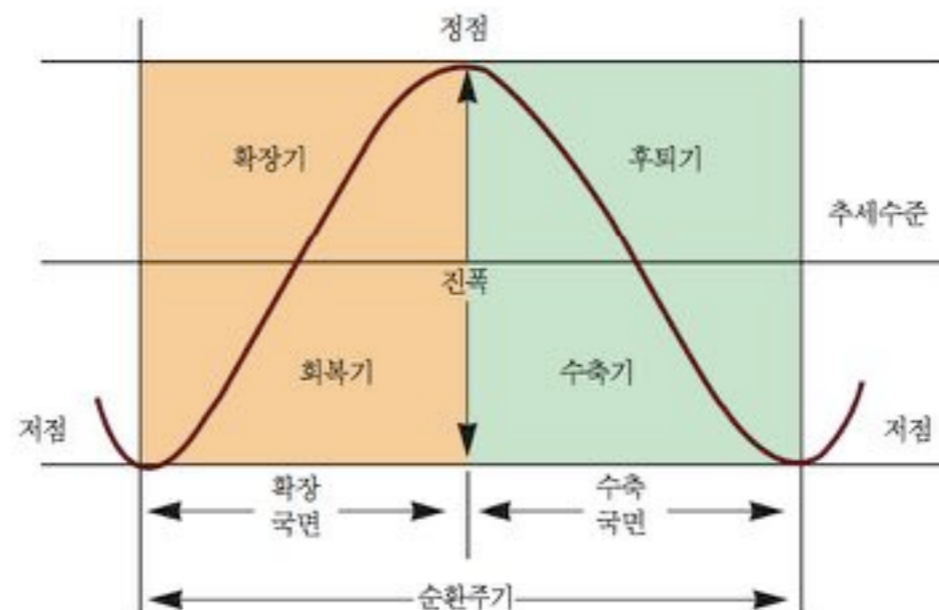


거시 경제정책 Macroeconomic Policy

경제 안정화 정책 Stabilizer

- 경제안정화 정책: 주로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기순환의 진폭을 줄이는 정책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음

경기의 순환과정



통화정책 & 재정정책

Monetary & Fiscal Policy

	실행주체	정책수단
통화정책	한국은행	통화량, 이자율
재정정책	정부	세금과 정부지출

장기 경제성장

Long-run Economic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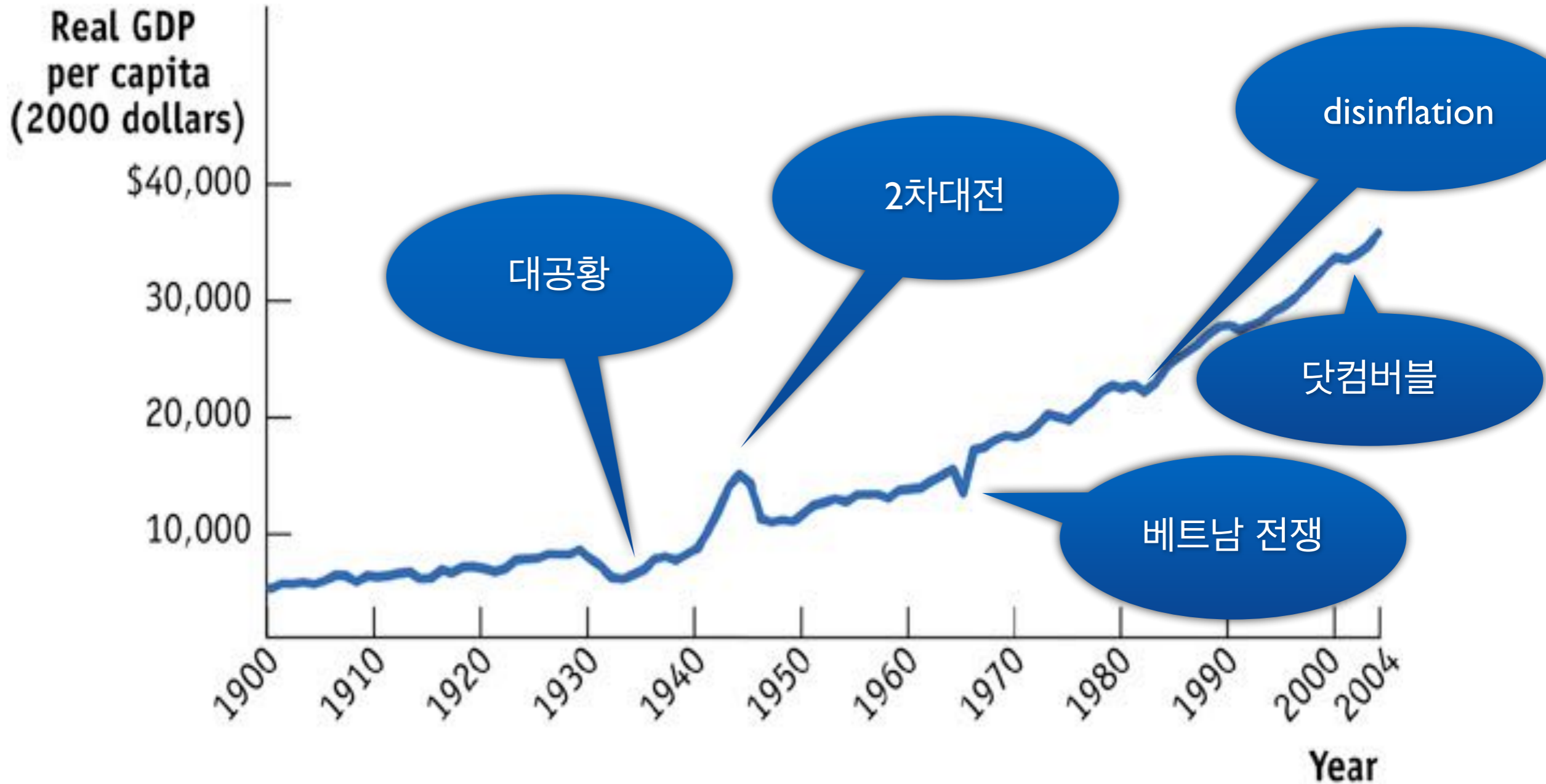
장기경제성장

Long run Economic Growth

- 경기순환에도 불구하고 (실질)총생산은 꾸준히 상승
- 자본주의 시기 이래 총생산의 증가율은 거의 언제나 인구증가율보다 높았음
- 장기 경제 성장: 이러한 추세를 지칭하는 용어

미국 일인당 실질GDP 추이: 1900-2004

Real GDP per capita of US: 1900-2004



장기경제성장요인 Factors of LR Growth

- 저축(→ 투자):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유리
- 결국 공급요인의 문제: 산업구조, 기술, 자원, 환경
등

물가와 인플레이션

Price level and Inflation

명목과 실질

Nominal and Real

- 모든 가치척도는 화폐 단위로 계산
- 문제는 화폐의 척도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 (ex. 1986년의 죠스바: 100원)
- 명목척도: 물가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화폐척도
- 실질척도: 물가변화를 반영한 화폐척도

물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Price Level, Inflation, Deflation

- 물가수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수준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것.
- 인플레이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 디플레이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물가의 측정문제 Measuring Price Level



짜장면 : 3000원 --> 3500원

이런 경우 물가는 상승한 것
인가? 하락한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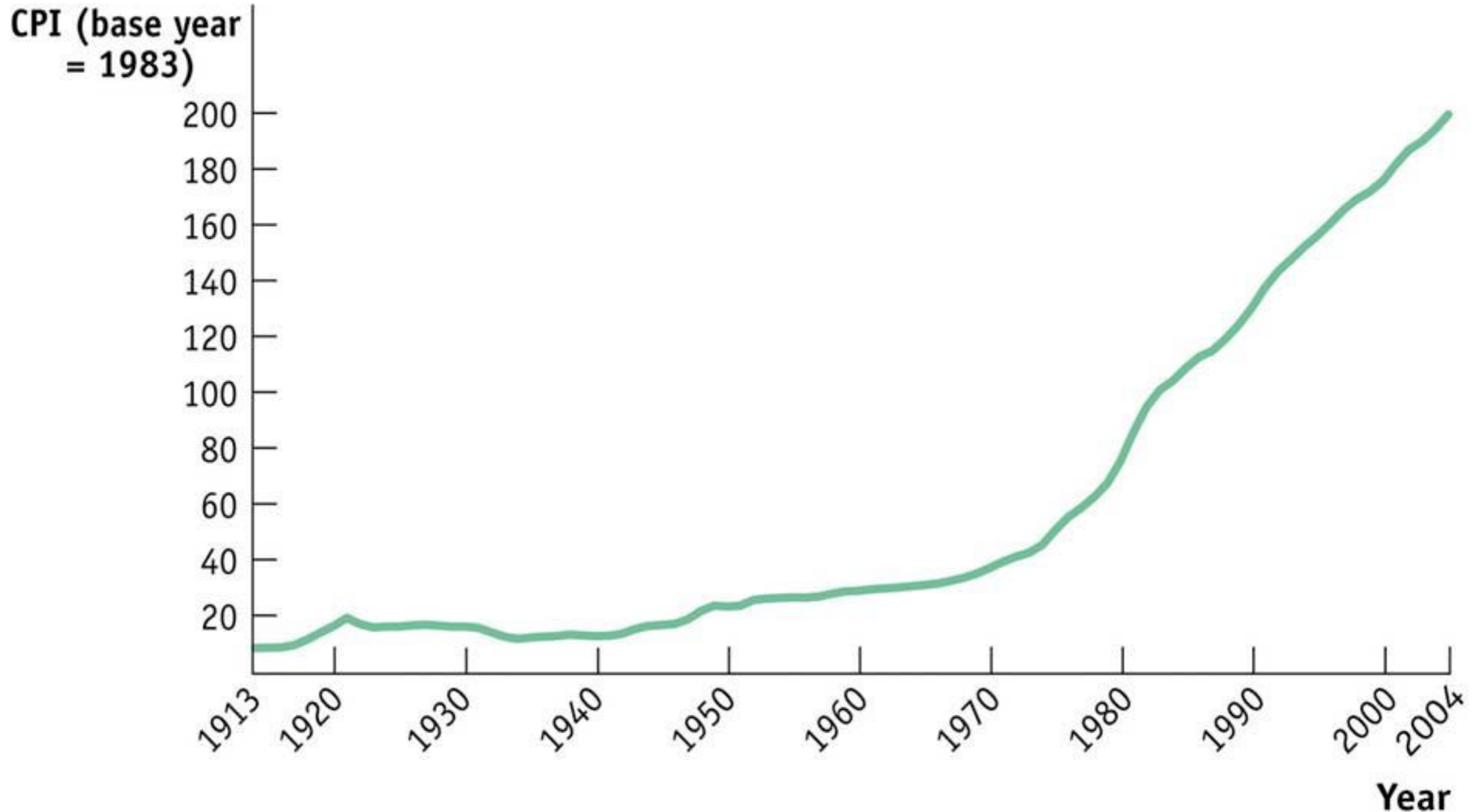
하드디스크 : 20만원 --> 15만원

물가지표 Price Index

-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 GDP deflator
- 이 이외에도 다양한 물가지표 존재

미국의 물가수준추이

CPI of US: 1913-2004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의미

Meaning of Inflation & Deflation

- 인플레이: 화폐가치의 지속적 하락을 의미 - ex) 10년전의 1000원과 지금의 1000원은 의미가 같은가?
- 디플레이: 화폐가치의 지속적 상승을 의미

인플레이션의 의미

Meaning of Inf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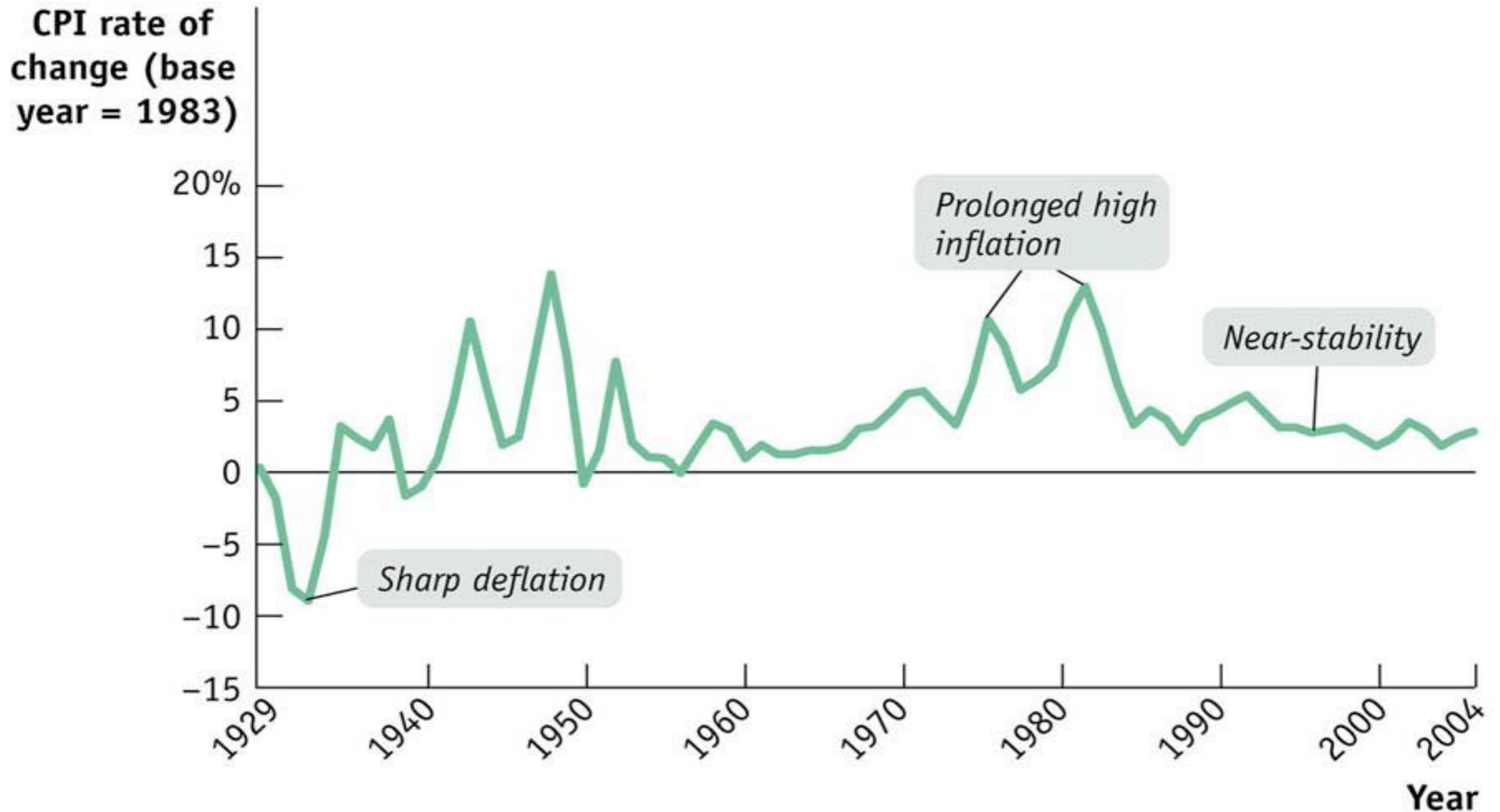
-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학적으로 선호됨
- 투자의 유인이 높아짐
- 불황기의 안정화정책에 대한 여유확보

디플레이션의 의미

Meaning of Deflation

- 그렇다면 적당한 디플레이션도 순기능을 할 것인가?
- 현금보유의 매력 상승 --> 현금보유증가 --> 투자하락 --> 디플레이션 증가 --> 현금보유의 매력이 더 상승 --> .. (악순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추이 Inflation Rate of US: 1929-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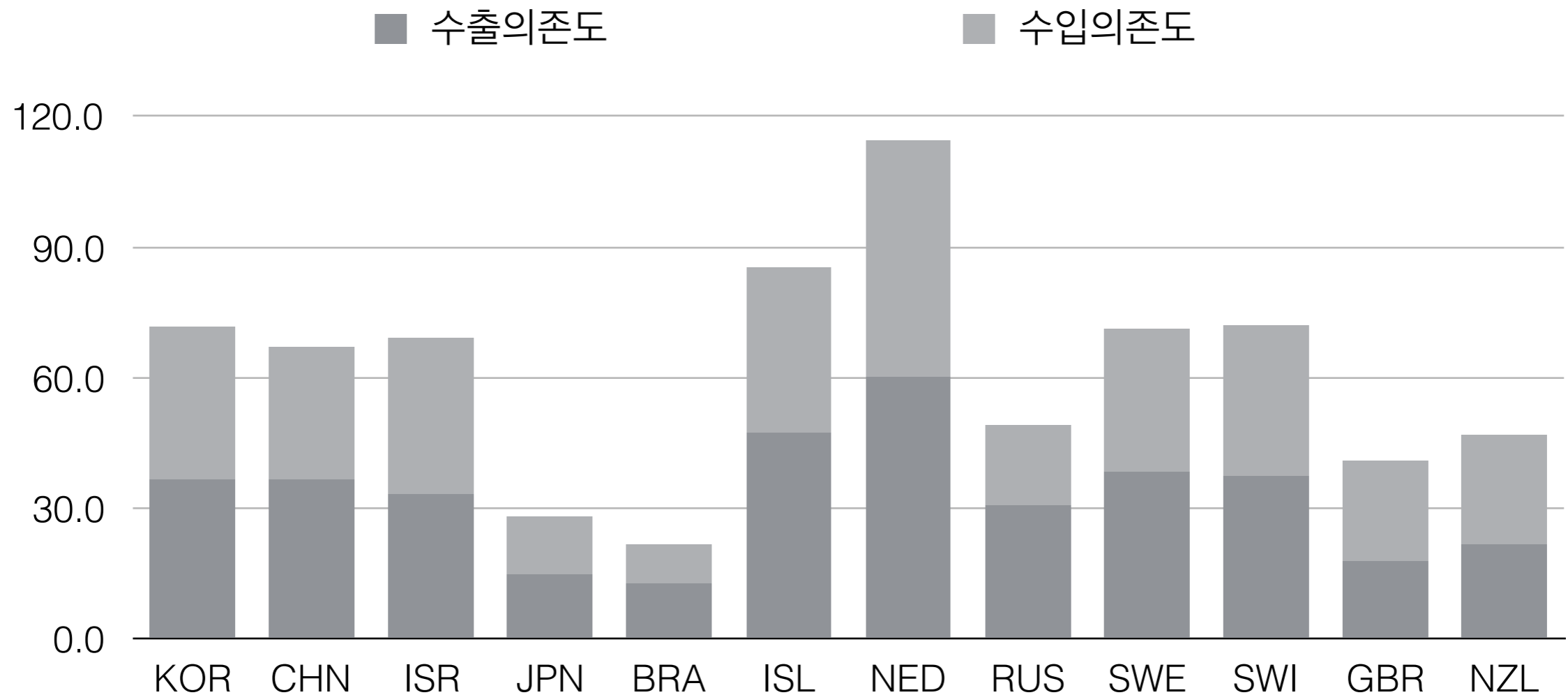
개방경제 Open Economy

개방경제와 폐쇄경제

Open & Close Economy

- 폐쇄경제(Closed economy): (다른 경제권과) 교역하지 않는 경제
- 개방경제(Open economy): 다른 경제권과 교역하는 경제
- 거시경제학은 개방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연구해야 함

국가별 대외의존도 Dependence on Foreign Trade



개방경제 관련 문제

Issues in Open Economy

- 환율
- 국제수지
- 국제금융거래

환율변동의 영향

Influence of Fluctuation in Exchange Rate

- 환율상승 --> 수입물가상승 --> 물가상승 --> 인플레이션 악화
- 환율상승 --> 수입품가격상승 --> 수입감소 --> 무역수지개선
- 환율상승 --> 수출품가격하락 --> 수출증가 --> 무역수지 개선
- 환율상승 --> 원화가치하락 --> 부채부담증가...

국제적 자본거래

International Capital Trading

- 자본흐름(Capital flow): 금융자산의 국제이동
-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의 국제이동은 쌍방의 편익을 증가시킴
- 한편, 투기적 자본거래는 국제적 금융 불안정성을 심화시킴

인지에 대한 간단한 행동실험

- 칠판에 그어진 선의 길이를 맞춰봅시다!
- <https://goo.gl/forms/JxmUjEY0FBSELYE82>
- 가장 정확히 맞춘 두 학생에게 도서상품권 지급

Next Class

- 재화시장 (수요, 생산, 소득), 재정정책 (Ch3)
- 금융시장과 이자율, 통화정책 (Ch4)

수고하셨습니다!